

우리 함께 부르는 '문비어천가'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아침 일찍 출근한 비서관이 한 사내를 발견한다. 사내는 복도 한쪽에 쭈그려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다. 다가가 자세히 보니 놀랄게도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닦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시골뜨기라서 품위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있던 비. 비서관은 크게 맘먹고 충고한다. "대통령의 신분으로 구두를 닦는 모습은 또 다른 구설수를 만들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말한다. "허, 자신의 구두를 자신이 닦는데 뭐가 부끄럽다는 건가?" 그리고 덧붙이는 말. "세상에는 천한 일이란 없네. 다만 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그는 구두 수선공의 아들이었다. 어렸을 때 해진 옷을 입고 발가래이 튀어나오는 신발을 신을 정도로 지독한 가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 또 다른 대통령이 있다. 그가 자리에 앉으면서 양복 상의를 벗는다. 직원이 황급히 다가와서 탈의를 거든다. 대통령은 직원을 물리치며 말한다. "제 옷은 제가 벗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의 19대 대통령 문재인이다. '서민 대통령'을 굳이 내세우진 않았지만 그도 알고 보면 '흙수저' 출신이다. 이북 출신 피란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링컨처럼 지독한 가난을 겪었다. 아마도 그러한 과거를 그는 지금도 잊지 않았을 것이다.

좁처럼 볼 수 없었던 모습들

문 대통령의 소탈한 행보가 연일 화제다. 참모들과 함께 각자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모습, 출근길에 마주친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셀카'를 찍는 모습, 청와대 구내식당 배식대에 직접 줄을 선 뒤 3000원짜리 식사를 하는 모습. 초등학교생에게 사인을 해 주기 위해 여느 할아버지처럼 미소 지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리는 모습.

이 모두 이전엔 좁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신선했다. 우리도 이런 대통령을 갖게 되더니, 미국의 오바마가 부럽지 않다.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 유명한 광고 카피처럼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달라졌다.

소소한 즐거움도 있다. 용모가 준수한 남자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청와대의 한 경호원, 그리고 좁 처지인(?)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들을 예프프(F4)라 하던가. 여기에서의 F4는 팬텀 전투기가 아니다. '꽃미남 4인방'(Flower Four)을 말한다. 그래서 '얼굴(용모) 패권주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정권이 바뀌니 자고 나면 들려오느니 흐릿한 소식이다. 하루가 다르게 우울한 소식만 쏟아졌던 지난 시절과는 확연히 다르다. 아들이 사라지고 세상이 갑자기 환연한 느낌이다. '이제야 살맛 난다'는 사람들이 많다. 내 주머니에 1원 한 푼 들어오진 않을지라도, 국민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 바로 대통령의 존재 이유 아닌가.

우리를 즐겁게 해 주는 이가 또 있으니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다. 손수 트렁크를 들고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이 정겹다. 출근길 남편을 배웅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다정한가. 진한 분홍빛 원피스 차림의 그녀가 한 손으로 대통령의 허리를 감으며 속삭인다. "바지가 짧아 보이니 좀 내려주세요." 대통령의 답이 재미있다.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웃음이 터진다. 여느 보통 부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선거기간 동안 '호남 특보'로 활약했던 김 여사는 늘 밝은 모습이다. "재인야. 우리 결혼할 거야, 말 거야?"라며 프러포즈했다는, 적극적이고 명랑

한 성격의 김 여사. 그리고 착하고 조용한 성품의 대통령 남편. 숙된 표현이어서 미안하지만 둘은 '한 쌍의 0000처럼' 잘 어울려 보인다.

"들어가서 라면 하나 드세요." 흥은동 자택에서 청와대 관저로 이사를 준비할 때. 찾아온 민원인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 비빔국수를 함께 들었다는, 따뜻한 정숙 씨. 유쾌한 정숙 씨.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발뒤꿈치도 달갈처럼 보인다"더니 우리 정숙 씨, 양쪽 눈언저리의 몇 가닥 주름살조차 아름다워 보인다. 떠올리기도 싫지만 60대 중반 비슷한 나이임에도 잔줄 하나 없었던, 깨끗해서 오히려 더 추했던 저 '겨울 공주'의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지 않는가.

이리 하루아침에 될 것을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평소 어눌한 듯싶더니 어찌 그리 말도 잘하던지. 그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통령의 말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감동적이다.

소통과 화합은 따뜻하게, 적폐 청산은 전광석화(電光石火)처럼. 그런 대통령의 행보도 좋았다. 총리에 호남 출신을 지명하고, 세월호 참사로 희

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다.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 또한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해 주었다. 이리 하루아침에 될 것을 그리 야단법석을 떨었던가.

어제는 5·18 민중항쟁 37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실로 얼마 만인가. 가슴이 뭉클했다. 문 대통령이 추모사를 마친 유가족을 따뜻이 안아 주는 장면에서는, 정말 참았던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르르 흘러내렸다. 대통령이란 무릇, 이처럼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했던 링컨은 이런 말도 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서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비록 천천히 가더라도 이제 다시는 뒤로 가는 역사의 퇴행이 없기를 마치 바퀴벌레 같은 골동극우 보수세력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나와 집권하는 불행한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당신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세상이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시길! 지금 모두 한목소리로 부르는 '문비어천가'(文飛天歌), 이 흥겨운 노래가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도 계속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유공자들 의견 듣고 **문 대통령, 5·18 소통행보 눈길** 희생자 딸 위로하고

기념식 후 50명과 오찬 위로 5월 3단체 공법 전환 지원 광주트라우마센터 건립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기념식 직후 광주 한 식당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장, 회원 등 50여명과 오찬을 했다. 마지못해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국무총리를 보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5·18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면서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날 오찬은 문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5·18기념식 참석자 광주에 와서 관광 서울로 가는 것은 5·18유가족, 부상자를 비롯한 광주시민에 예의 아니라는 대통령 판단 때문이었다.

오찬 시작은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장의 감사인사로 시작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한 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공동적인, 하나가 된 기념식을 열어줘 감사하다. 기념사를 통해 5·18진실규명을 재차 약속해주신 점도 거듭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로도 후보시절과 마찬가지로 겸손하고

따뜻하게 대해줘 시종 환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런 탓에 5월 단체 회원 등 참석자들이 대통령에게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할 수 있었다고 귀띔했다.

한 참석자가 "5·18당시 국군통합병원으로 사용됐던 부지에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분들을 치료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 광주시가 추진하다 보니 재정적 어려움 등 곳곳에 걸림돌이 많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도와야죠.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후식 5·18민주유공자 부상자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5월 3단체 통합에 대한 건의를 하고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회장이 "유족회, 부상자회, 국수부상자회 등 5월 3단체가 사단법인을 벗어나 다른 보훈단체처럼 공법단체로 전환하려고 한다. 하나의 공법단체로 전환해 하나의 목소리로 내고 싶는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보훈처에 지시해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꼭 돕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 참석자가 "5·18시민권 최후 항쟁지로 복원 요구가 거센 옛 전남도청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통해 '도청 복원



제37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객들을 만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단

과 관련해서는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책임을 미루신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뜻이 아니다. 광주시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면 적극 돕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기념사와 마찬가지로 오찬장에서도 본인이 대신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꼭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진상규명 위해 행방불명자 찾기 재개하라"

5·18기념식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눈길을 끌었다. 아버지와 딸의 기막힌 5·18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렸고, 딸을 포옹했다. 또 5·18 진실 규명을 촉구하다 숨진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의 닳을 위로했다. 행방불명자 찾기(광주일보 18일자 1·3면)에 대한 관심도 나타났다.

대통령을 올린 주인공은 김소형(여·37)씨였다. 완도에서 직장을 다녔던 아버지는 1980년 5월 18일에 태어난 딸을 보려고 광주를 찾아왔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5·18동으로 태어난 딸은 5·18기념식에서 추모글을 읽다가 감정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고, 지켜보던 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발뚧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문 대통령은 김씨를 끌어안아 위로했다.

자리로 돌아온 문 대통령은 가수 전인권 씨가 추모곡으로 '상록수'를 부르자 이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상록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부르던 곡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업무지시를 내려

제정할 수 있게 한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불렀다. 자리에서 일어나 양쪽에 있던 정세균 국회의장과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인 김종률 씨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노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의 죽 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 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희생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 문 대통령은 호명하는 희생자는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단식하다 옥사한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고 분신한 노동자 표정범,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병동성당에서 투신한 서울대생 조성만, 같은 해 '광주는 살아있다'고 외치며 숯실대에서 분신한 숯실대생 박래전 등이다.

5·18 행방불명자에 대한 관심도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행방불명자에서 현와 의 목숨을 한 뒤 정수길 5·18묘지소장에 게 행방찾기 현황을 물었다. "지금은 중단됐다"는 답변에 문 대통령은 "진상 규명이 더 되도록 행방찾기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입자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치평동 상가 매매

- 상무나이트 옆 수림상가
- 10층 중 10층 795㎡(250평)
- 임대가(5000만/350만)
- 감정/시세 8억 7700만
- 급매 7억 7000만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33평)
- 교육환경 최상
- 시세 4억 3000만
- 매매 4억 1500만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 수기동 23-2번지 제일오피스텔
- 19층 95㎡(28평)
- 임대중(400만/월 47만)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5900만

문의 010-9203-6161